



건강체크

발생기전 정확하지 않은 담도암, 70대 발생률 ↑

담도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 대표적 증상으로 알려진 황달도 없는 경우가 많고, 비특이적인 복통이 오거나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나지는 정도이다. 담도암의 생존율을 높이는 최선의 길은 가능한 한 암을 일찍 발견하여 수술하는 것이지만 전체 담도암 환자 중 근치적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현재 40~50% 정도에 불과하다.

▶담도암이란?

담도암이란 담즙이 배출되는 경로인 담관, 담낭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통칭한다.

2018년 12월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새로이 발생한 22만9180건의 암 중 담낭·담도암은 남녀를 합쳐서 6685건이었고, 그중 담낭암은 2554건, 담도암은 4131건으로 나타났다.

또, 담낭·담도암은 전체 암 발생의 2.9%로 8위를 차지했다.

담낭·담도암이 발생한 남녀의 성비는 1.1:1로 남자에게 약간 더 많

이 발생했다. 발생 건수는 남자가 3490건, 여자가 3195건이었다. 남녀를 합쳐서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4.7%, 80대 이상 24.1%의 순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이 늘어나는 암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장기의 고형성 종양과 마찬가지로 담도암에서도 근치적 절제술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이나 대부분의 담도암 환자는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견되며, 설령 근치적 수술을 하더라도 낮은 국소 재발과 원격전이로 장기생존을 기대하기 어렵다.

▶담도암의 발생 기전

현재로는 담도암의 발생 기전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구를 통해 담도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위험요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간흡충(간디스토마) 감염'이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의

하나로, 담도 벽에 붙어서 산다.

간흡충 감염 유병률은 특히 한국과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외의 위험인자는 간 내 담석증, 담관농양이나 췌담관 합류 이상 같은 선천성 기형, 케양성 대장염, 원발 경화성 담도염, 선천성 간 섬유증 등이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명확한 기전이 알려지지 않았다.

▶담도암의 증상 및 치료

담도암의 대표적 증상은 무통성 황달이다. 황달은 담도암으로 인해 담즙의 흐름이 막혀 그에 따른 혈액 내에 빌리루빈이라는 물질 분비가 많아져서 발생한다. 빌리루빈은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것으로, 담즙 색소의 주성분이다.

황달이 오면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갈색 소변과 회색 배변을 누며,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긴다. 담도암으로 인한 담도 폐쇄는 서서히 진행되므로 황달은 담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며, 통증이 없는 수가 많고, 담관염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열도 없는 경우가 많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담도암은 치료가 매우 어렵지만,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담도암의 항암 화학요법

어떠한 약물이나 약물의 조합이 담도암에 가장 효과적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젠시타빈(gemcitabine)과 시스플라틴(cisplatin)(GP) 병합요법이 젠시타빈 단독요법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GP 병합요법을 진행성 담도암의 1차 치료로 먼저 추천한다.

2010년 발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국소 진행되거나 전이된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GP 병합요법군의 중앙 생존 기간이 백색 변을 누며,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긴다. 담도암으로 인한 담도 폐쇄는 서서히 진행되므로 황달은 담도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며, 통증이 없는 수가 많고, 담관염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발지 않다.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는 근치적 절제술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적용된다.

한국의 담낭암 및 기타 담도암의 5년 상대 생존율 추이를 보면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스텐트 삽관술

근치적 절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동반된 황달을 경감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담도암 환자들의 주된 사망 원인이 담즙 정체, 담도염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달을 해결하기 위해 담즙을 배액하는 개복 수술을 경우에 따라 시행하기도 하고, 비수술적으로 내시경 등을 이용하여 담도 스텐트 삽관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요즘 많이 쓰이는 스텐트 삽관술은 경험 많은 의사가 주관할 경우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수술과 관련된 사망률은 0.1% 정도로 매우 낮다.

그러나 환자의 현재 상태, 받고 있는 치료, 담관염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상가가 환자 및

환자 보호자와 잘 상의하여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달에 대한 다른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경피경간 담즙배액술도 고려할 수 있다.

▶담도암의 예방

치료가 어려운 암인 만큼 담도암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담도암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나 권고되는 명확한 검진 기준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알려진 위험요인을 일상생활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위험인자 중 간흡충증이 잘 알려진 만큼 민물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간흡충증으로 인한 담도암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내에 결석이 있으면 제거하고,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 케양성 대장염, 선천성 담도 기형 등이 있는 환자들은 각기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 또한 담도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재훈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지 발행)】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지인 사칭하는 '메신저 피싱' 주의보

메신저 피싱이란? 다른 사람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스 피싱 관련 피해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메신저 피싱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도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했다.

메신저 피싱 범죄의 수법으로는 지인 사칭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얻는 행위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해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

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탈취하는 범죄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메신저 피싱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수칙을 알아보자.

첫째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둘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려다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메신저 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 해당 금융기관으로 연락해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

야 한다. "왜 바보같이 당하지", "나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안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누구라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명심하자.

메신저 피싱 수법과 예방수칙을 잘 숙지해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더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김창희(국세경찰서 경무계)】

장마철 집안의 누전차단기 점검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도록 사전 안전점검이 절실히 요구되는 계절이다.

특히 전기와 물은 위험한 관계가 있으므로 장마철을 맞이하여 전기의 안전장치인 누전차단기의 점검방법을 알아본다.

누전이란 배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나 가전제품의 몸체 등 전기배선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며 누전차단기는, 미세한 누전이 발생해도 전기를 0.03

초 이내에 고속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220V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량기와 커바나이프스위치 두꺼비집 또는 차단기 사이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

산업기기 모터 등 특정 전기기구를 쓸 때는 110V의 경우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미세한 누전에도 작동해 전기가 자주 차단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떼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감전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누전차단기에는 누전만 차단해 주는 초록색 버튼이 달린 제품과 누전 및 합선 등에 의한 과전류를 함께 차

단해 주는 빨간색 버튼이 달린 제품이 있다.

누전차단기·점검방법은 초록색이나 빨간색 시험버튼을 눌렀을 때 '딱' 소리가 나면서 개폐스위치 가 내려가면 정상이고 개폐스위치가 움직이지 않으면 불량이다.

누전차단기·점검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해봐야 되며 장마철을 맞

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불량한 누전차단기는 인근 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연락하여 수용가 부담으로 교체해야 한다.

미리미리·점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장마철을 보냈으면 한다.

【오원균(여수소방서 여서119 안전센터)】

Advertisement for Honam Maeil newspaper featuring a bamboo forest background. Text includes '새희망 새언론 새천년', '푸른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